

“기업이 행복하게!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게!”

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2020. 12



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

목 차

I. 조사개요	3
II. 전북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	4
1. 2021년 경제 흐름 전망	4
2.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	5
가. 사업계획 방향	5
나. 사업계획 수립 애로사항	6
3.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	7
4. 내년도 수출 전망	7
가. 수출 실적 및 전망	7
나. 수출 실적 악화 요인	8
III. 결론 및 시사점	9

I. 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-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·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
2. 조사기간

- 기초자료 조사 : 2020. 12. 1 ~ 12. 11
- 자료정리 및 분석 : 2020. 12. 12 ~ 12. 18
- 보고서 작성 : 2020. 12. 20 ~ 12. 23

3. 조사대상

- 전북지역 소재 기업 126개사

4. 조사방법

- FAX와 전화조사 병행

5. 조사항목

- 2021년 경제흐름 전망
-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
-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
- 내년도 수출 전망

6. 기 타

-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
-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(%)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7. 응답기업 특성

- 본 조사에 참여한 126개 기업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

[설문 응답기업 특성]

구 분		응답업체(개)	응답비율(%)
전 체		126	100.0
매 출 액 ^D 규 모	대 기 업	4	3.2
	중 기 업	11	8.7
	소 기 업	111	88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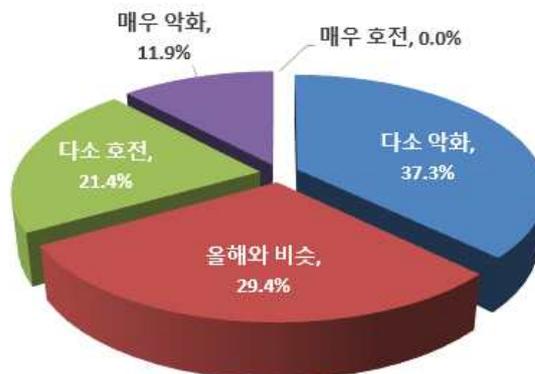
주1) 매출액 규모 구분 기준은 전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중기업,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함

Ⅱ. 전북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

1. 2021년 경제 흐름 전망

-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등장은 세계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음. 다가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내년도 경기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음
-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6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「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‘올해보다 악화될 것(49.2%)’ 이라고 응답하였음(매우 악화 11.9%, 다소 악화 37.3%)
- 내년도 경제흐름에 대해 ‘올해와 비슷할 것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9.4%, ‘다소 호전될 것’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.4%, ‘매우 호전될 것’ 이라는 응답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

[내년도 경제흐름 전망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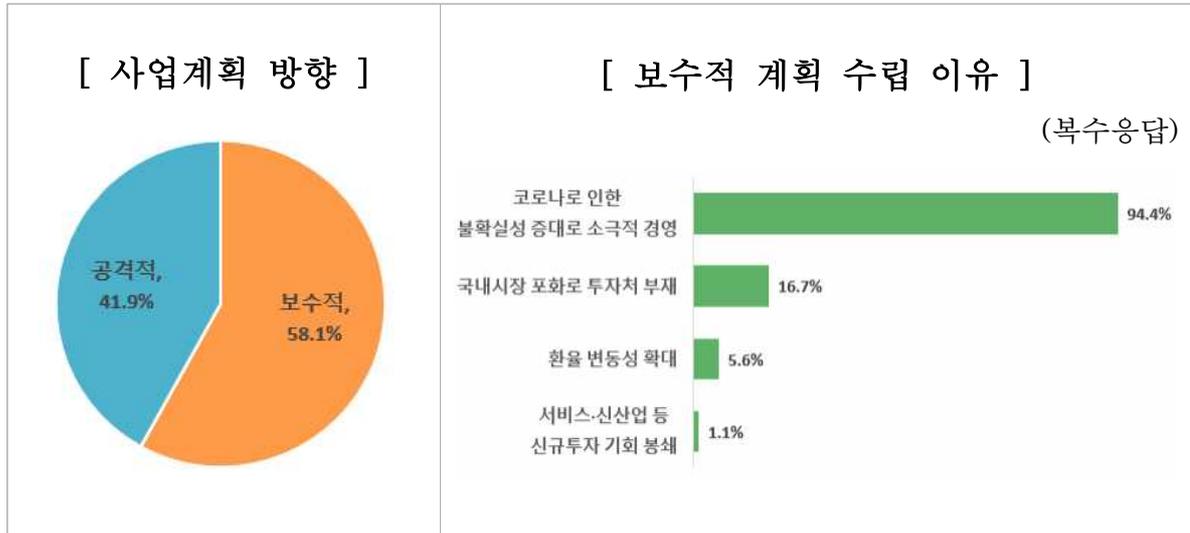
2.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

-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은 ‘**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(75.3%)**’ 고 응답했으며, 그 중 ‘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것 같다’ 는 기업도 19.0%에 달했음
- 한편, ‘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다’ 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24.6%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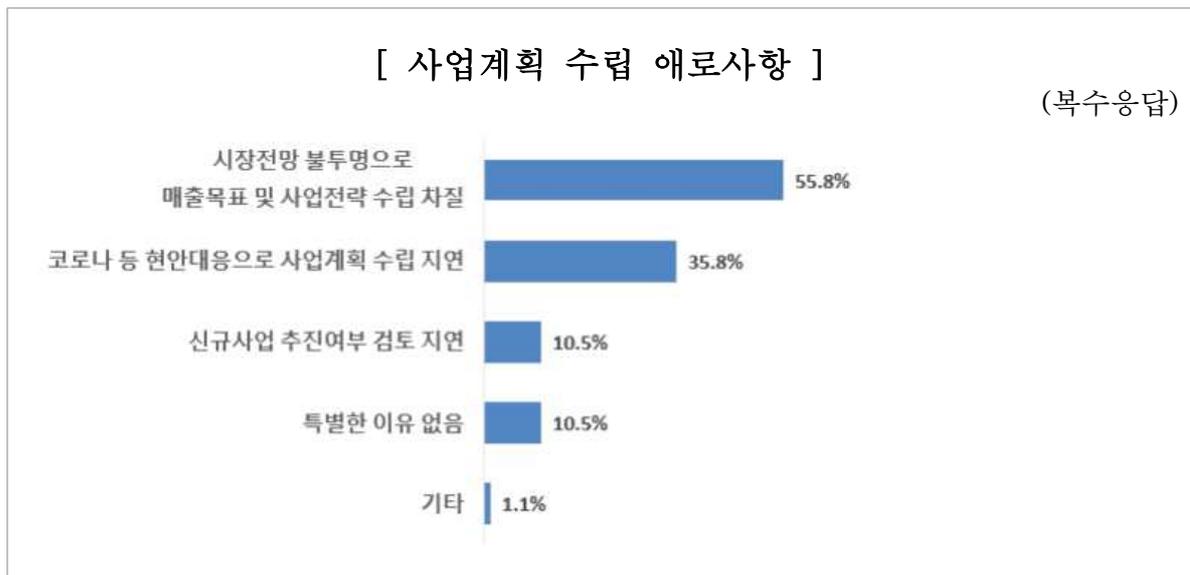
가. 사업계획 방향

-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업의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‘**보수적으로 수립했다**’ 라는 응답이 58.1%로 많았으며, ‘**공격적으로 수립했다**’ 는 응답은 41.9%로 나타남
- 내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을 보수적으로 계획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‘**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인 경영을 계획했다**’ 는 응답이 94.4%로 가장 많았으며, 뒤를 이은 응답으로는 ‘**국내시장의 포화로 투자처가 부족해서(16.7%)**’, ‘**환율 변동성의 확대 때문(5.6%)**’, ‘**서비스·신산업 등 신규투자 기회 붕괴 때문(1.1%)**’ 순으로 조사됨(복수응답)



나. 사업계획 수립 애로사항

-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‘시장전망이 불투명해 매출 목표 및 사업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’ 라는 응답이 55.8%로 가장 많았으며, ‘코로나 등 현안대응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’ 라는 응답이 35.8%로 뒤를 이어 높은 응답률을 차지함(복수응답)
- 이외에도 ‘신규사업 추진여부 검토가 지연되고 있어서’ 라는 응답과 ‘특별한 이유가 없다’ 라는 응답이 각각 10.5%로 조사됨



3.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

- 우리 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‘올해와 비슷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58.7%로 가장 많았으며, ‘올해보다 줄일 것’이라는 응답은 28.6%, ‘올해보다 늘릴 것’이라는 응답은 12.7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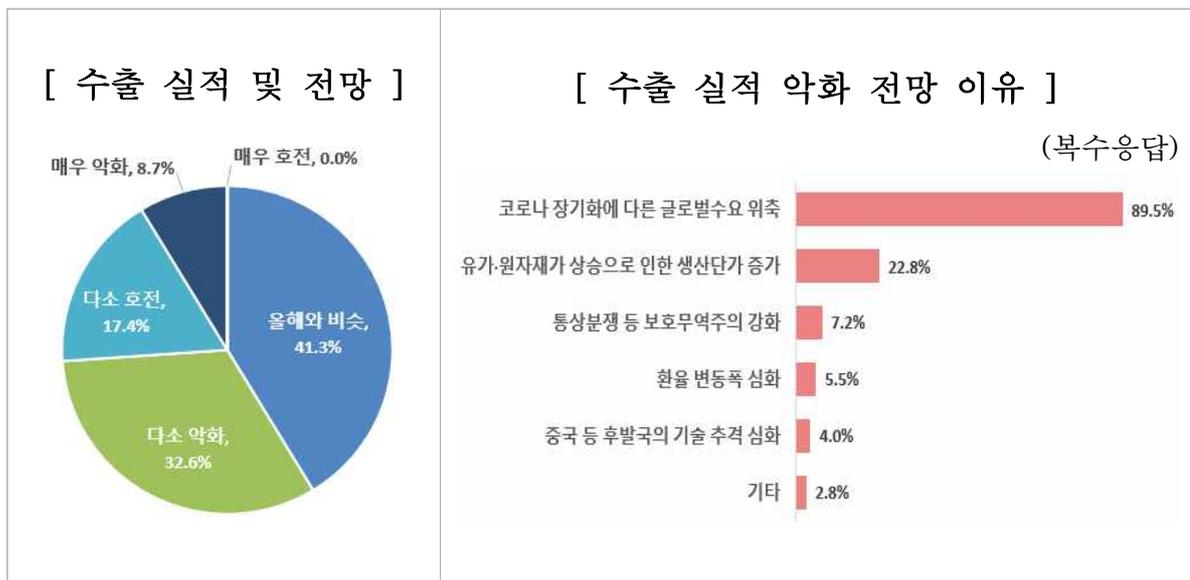
4. 내년도 수출 전망

가. 수출 실적 및 전망

- 우리지역 기업 중 수출기업에게 내년도 예상하는 수출 실적 및 전망을 물은 결과 ‘올해보다 악화될 것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1.3%로 집계됐으며, 그중 8.7%는 ‘매우 악화될 것’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다소 악화 32.6%)
- 아울러 ‘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’는 의견이 41.3%였으며, ‘다소 호전될 것’이라는 의견은 17.4%를 차지함(매우 호전 0.0%)

나. 수출 실적 악화 요인

- 내년도 수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‘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위축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89.5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뒤를 이어 ‘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의 증가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22.8%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(복수응답)
- 이외에도 ‘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7.2%, ‘환율 변동폭의 심화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5.5%, ‘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 심화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4.0%로 조사됨



Ⅲ. 결론 및 시사점

-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은 대체로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, 코로나19의 확산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상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내년도 사업계획 역시 올해 안에 계획수립이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1/5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최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경제가 회복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구개발, 투자증설 등 공격적인 경영을 피하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견디며 살아남기 위한 경영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

- 따라서 다가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판로 확보, 세금 감면, 규제 완화, 친기업적 고용·노동 정책 등을 파격적으로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